

포스텍, 수술후 피부유착 막는 방지제 개발

연말뉴스 | 기사입력 3124.16.17 25:4: | 최종수정 3124.16.17 26:25



포스텍 한세광 교수 (포항=연합뉴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이 신봉제약과 공동으로 생체 고분자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이용한 신개념 유착방지제 '메디커튼'을 개발했다. 사진은 한세광 교수. 2013.5.6 <<포스텍>> shlim@yna.co.kr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스텍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이 수술 후

나타나는 피부의 유착현상을 막는 '메디커튼'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교수팀은 신풍제약과 공동으로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이용한 신개념 유착방지제를 개발했다.

메디커튼은 국내 6개 대형병원의 자궁경을 통한 수술 환자 213명과 3개 병원의 복강경 수술환자 91명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착방지 효능이 확인돼 최근 국내 의료시장에 출시됐다.

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승인을 받아 유럽 등 세계 의료시장 진출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복강경·자궁경 수술 후에는 피부나 막 등이 염증에 의해 붙는 유착현상이 발생해 소장폐색, 만성골반증, 장천공 등 각종 후유증이 발생한다.

메디커튼은 수술 후 동반되는 이 같은 유착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포스텍과 신풍제약의 산학 연구를 통한 첫 사업화 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한 나노의약 제품을 상업화해 바이오·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히알루론산 유도체를 이용한 성형수술용 필러, 관절윤활제, 간질환 맞춤형 단백질 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한 교수팀은 최근 3년간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다양한 생체재료를 이용한 나노의약 개발 논문 33편을 발표하는 등 나노의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용어설명

▲ 히알루론산 = 체내 기질, 근골격계, 관절, 안구, 혈액 등에 존재하는 생체고분자로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안전성으로 인해 관절염 치료제, 안과 수술용 보조제, 성형수술용 필러 등 조직공학 재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 = 혈액보조제 또는 인공혈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이온성 전분 유도체로 염증 및 혈전형성 억제 효능이 우수하다.

shlim@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동대구역서 30대 남성 생식기 절단 소동(종합)
- ☞ 장근석의 팀에이치, 일본서 앙코르 공연
- ☞ 말레이 총선 집권연합 승리...60년 연속 집권(종합2보)
- ☞ -美야구- 추신수, 시즌 14번째 멀티히트
- ☞ 총리실 '대체휴일제 논란' 거중조정 시도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243969>
